
2021년 3/4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(BSI) 조사 결과

2021. 6.

< 조사개요 >

1. 조사명

- 「2021년 3/4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(BSI) 조사」

2. 조사 목적

- 분기별 지역 제조업체의 체감경기 파악 및 경기 예측
- 경기 흐름에 따른 정부 및 지자체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 제시

3. 조사 기간: 2021. 6. 8. ~ 6. 29.

- 조사표 발송 및 회수: 2021. 6. 8. ~ 6. 22.
- 분석 및 보고서 작성: 2021. 6. 22. ~ 6. 29.

4. 조사 대상

- 부산지역 주요 제조업체 500개체(유효 응답 업체 250개체)

5. 조사 방법

- FAX를 통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

6. 조사 내용

- 전반적인 체감경기
- 매출, 영업이익 등 부문별 전망
- 주요 업종별 전망
- 최근 경제 및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 모니터링

7. 주의사항

- 각 항목의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비율의 합이 100.0%가 되지 않을 수 있음

8.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의 의미

$$\text{기업경기전망지수} = \frac{\text{호전(증가)표시 업체수} - \text{악화(감소)표시 업체수}}{\text{총 유효응답 업체수}} \times 100 + 100$$

※ BSI 기준치는 100이며, 100을 초과할 경우는 호전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, 100 미만일 경우는 그 반대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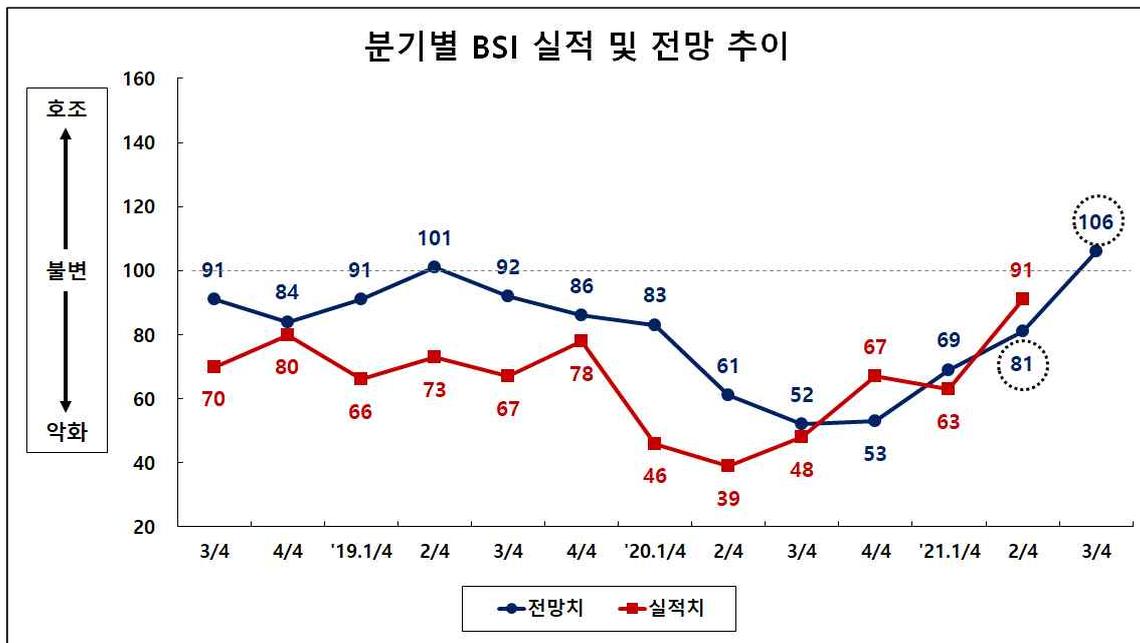
1. 전반적 경기 전망

□ 제조업 BSI 전망 106, 2019년 2/4분기 101 기록한 이후 약 2년 만에 100이상 기록하며 경기 호조 전망, 포스트 코로나시대 부산지역 실물 경기 회복 시그널

○ 2021년 2/4분기 81 → 2021년 3/4분기 106 (전분기 대비 25p 증가)

-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저효과 및 그로 인한 이연수요 발현, 수요산업 회복, 글로벌 경기완화 및 수출실적 증가세 시현 등 각종 대·내외 여건 개선으로 경기 회복 전환 기대감 상승
- 반면, 변이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한 재확산 불안, 미·중 무역분쟁 및 금리 변동 불확실성 증대, 원·부자재 가격 및 물류비 상승 부담 등 제약요인들은 여전히 존재, 경기 회복세 이어나가기 위한 전략적인 대책 수립 필요

○ 2021년 2/4분기 기업경기 실적지수는 91 기록 (전분기 대비 28p 증가)



□ 응답기업, 경기 불변에 무게

- 전체 응답 업체 분포를 보면, 경기가 2021년 2/4분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2.0%(130개사), 경기호전을 예상한 업체가 26.8%(67개사), 경기악화를 예상한 업체가 21.2%(53개사)로 집계

- 경기 불변 전망이 가장 높은 가운데 악화보다는 호전 기대감이 근소한 차이로 더 큰 상황

<2021년 3/4분기 경기전망 응답 분포>

구 분	호 전	불 변	악 화	계
응답업체수(개사)	67	130	53	250
구성비(%)	26.8	52.0	21.2	100

2. 경영 부문별 전망

□ 매출, 영업이익, 설비투자, 자금조달 여건 등 전 부문에서 100이상 기록

○ 매출(102), 영업이익(103)

- 코로나19 확산세 둔화, 백신접종 개시 등 각종 대·내외 여건이 개선 신호를 보임에 따라 지역 실물경제 생산 증가 전환, 매출 및 영업이익 회복 기대감 상승
-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, 소비심리 회복 및 고강도 제한조치 이후 이연 수요 발현으로 인한 내수시장 활성화 전망에 따라 3/4분기부터 점진적인 회복 전망
- 수출 실적 또한 사태 진전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개선되고 있으나 변이바이러스, 미·중 무역분쟁 및 물류비 상승 등 제약요인 존재로 추세 관망 필요

○ 설비투자(104)

-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비한 신규 설비투자 확대 예상되는 반면, 부산지역 제조업계 특성 및 바이러스 재확산 등 제약요소는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

○ 자금조달여건(102)

- 경기 회복에 따른 채산성 개선 및 매출 증대 등 자금조달여건 개선의 여지 존재하나, 원·부자재 가격 상승세 지속 우려 및 공급 불안 등으로 점진적 회복 전망

<부문별 BSI 변화>

구 분	실 적		전 망	
	‘21.1/4분기	‘21.2/4분기	‘21.2/4분기	‘21.3/4분기
체감경기	63 →	91	81 →	106
매출액	66 →	96	81 →	102
영업이익	66 →	96	83 →	103
설비투자	87 →	106	92 →	104
자금조달여건	76 →	96	82 →	102

3. 주요 업종별 전망

□ 섬유, 조선기자재를 제외한 전 업종에서 경기 회복 전망하는 가운데
음·식료품 제조업은 불변 예상

○ 음·식료품(100)

- 내수심리 회복 기대감, 가정간편식(HMR) 수요 증가로 전분기 제조업 중 유일하게 100 이상의 지수를 기록하며 매출액 증가 전망했던 음·식료품의 경우, 백신 접종률 상승 및 그에 따른 확산세 둔화로 3분기에도 큰 변화 없이 회복세 지속할 것으로 전망

○ 섬유(93) / 의복(120) / 신발(120)

- 2/4분기 접어들며 수출 증가세 전환하였으나 유가 상승 등 원자재 가격 부담으로 인한 스프레드 축소로 섬유 제조업 불황 전망
- 코로나19 확산세 이후에도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꾸준한 수요가 있었던 의복·신발은 확산세 둔화에 따른 내수경기 활성화 영향으로 매출 증가 폭 더욱 커질 전망

○ 화학·고무(100)

- 연관산업 업황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 있으나 원유를 비롯한 원·부자재가격 상승 등 대외여건 부담 존재하는 상황

○ 1차금속(104)

- 철광석, 철스크랩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 중국 내 탄소저감정책에 따른 감산조치로 공급부족 사태 발생, 철강가격 급등으로 매출 개선
- 중국의 조강생산 축소 및 내수전환 기조와 국내를 비롯한 주요국 철강 수요 증가로 수출실적 또한 증가세 시현, 업황 호조세 지속 전망

○ 기계·장비(112)

- 자동차·부품, 조선·기자재 산업 경기 회복세 전환과 더불어 산업 및 수송용 기계·장비 생산량 증가하였으며, 주요국 설비투자 확대에 의해 수출 또한 증가세를 보이며 경기 회복 기대

○ 자동차·부품(110)

-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생산 둔화에도 르노삼성자동차 XM3 연식변경모델 출시 및 수출물량 확대 등 생산·수출 호조세 보임
-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조치, 전기차 생산·수출 증가세 등 각종 호재로 하반기 업황 호조세 이어갈 것으로 전망

○ 조선·기자재(93)

- 수주량 증가, 글로벌 물동량 확대 등 호재 이어지나 대형 조선사에 한정적이며 인도물량 실적 부진 및 매출액 반영까지 시차 존재로 단기간 내 경기회복기대는 어려운 상황

<주요 업종별 BSI 변화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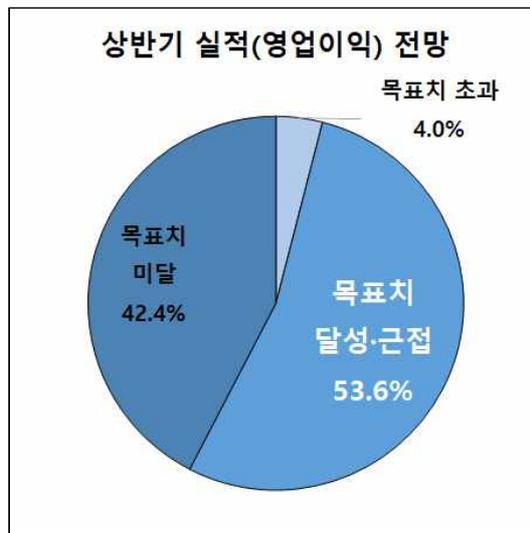
구 분	실 적		전 망	
	'21.1/4분기	'21.2/4분기	'21.2/4분기	'21.3/4분기
음식료품	93 →	87	127 →	100
섬유제품	60 →	87	40 →	93
의복·모피	53 →	120	93 →	120
신발제품	67 →	80	73 →	120
화학·고무	83 →	83	78 →	100
1차금속	80 →	123	92 →	104
조립금속	65 →	65	85 →	95

구 분	실 적		전 망	
	‘21.1/4분기	‘21.2/4분기	‘21.2/4분기	‘21.3/4분기
전기·전자	65 →	115	85 →	130
기계·장비	40 →	108	72 →	112
자동차·부품	60 →	87	60 →	110
조선·기자재	40 →	73	87 →	9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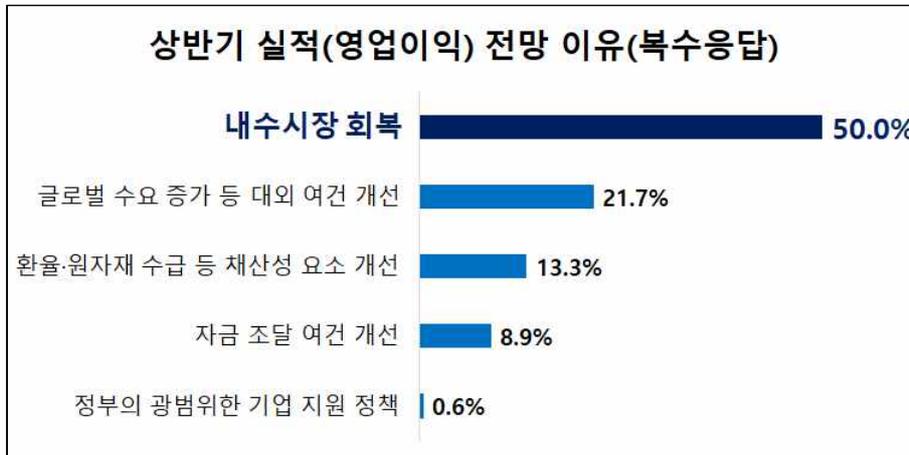
4. 기타 경영사항

□ 상반기 실적(영업이익) 전망

- 응답기업의 53.6%, 올해 초 계획한 상반기 실적(영업이익) ‘목표치 달성’ 또는 ‘근접 달성’ 가능하다고 응답
 - 반면 목표치 미달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42.4%에 달했으며, 목표치 초과달성 응답은 4.0%에 불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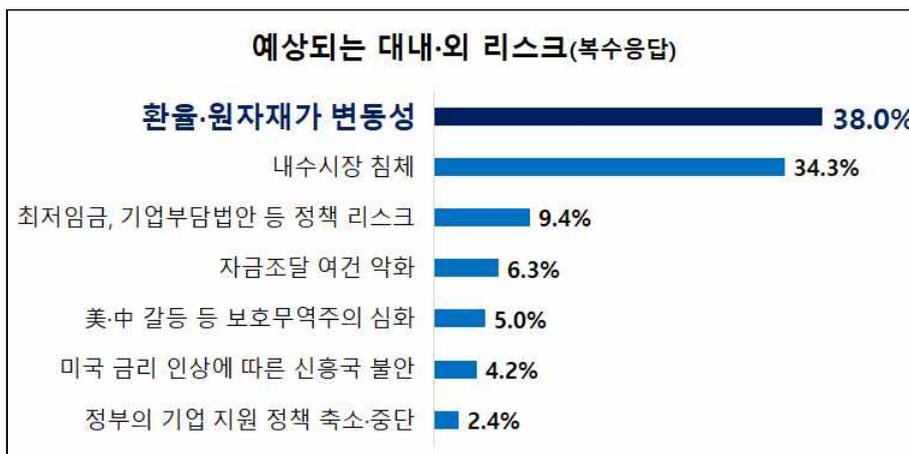


- 목표치 초과 또는 달성·근접 예상한 가장 큰 이유는 ‘내수시장 회복 (50.0%)’
 - 이어 ‘글로벌 수요 증가 등 대외여건 개선’ (21.7%), ‘환율·원자재 수급 등 채산성 요소 개선’ (13.3%), ‘자금조달 여건 개선’ (8.9%), ‘정부의 광범위한 기업 지원 정책’ (0.6%) 순으로 집계
 - 기타 의견으로 ‘계약단가 상승’, ‘공급망 회복으로 인한 공급안정’, ‘전후방 연계산업 경기 회복’ 등 응답



□ 하반기 대내·외 리스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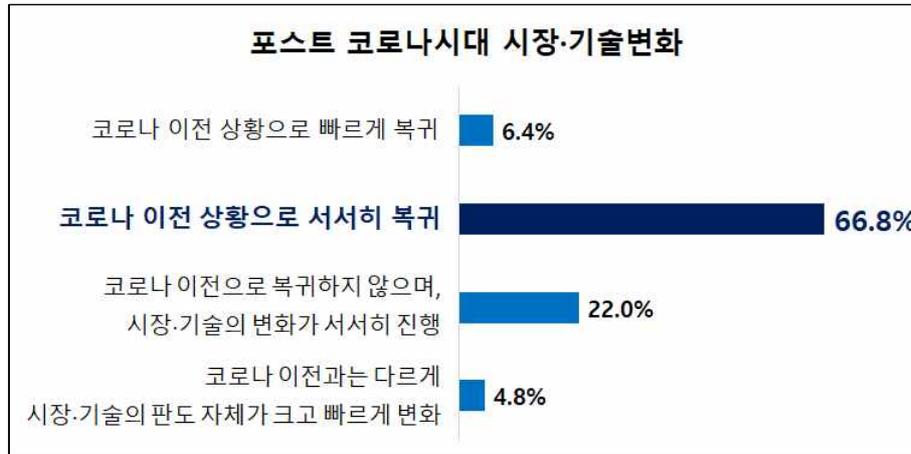
- 하반기 실적(영업이익)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·외 리스크로는 ‘환율·원자재가 변동성’ (38.0%), ‘내수시장 침체’ (34.3%) 등을 가장 많이 선택
- 그 외 ‘최저임금, 기업부담법안 등 정책리스크’ (9.4%), ‘자금조달 여건 악화’ (6.3%), ‘美·中 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심화’ (5.0%), ‘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불안’ (4.2%), ‘정부의 기업 지원 정책 축소·중단’ (2.4%) 등 응답



□ 포스트 코로나시대 시장·기술변화 전망 및 기업의 역할

- 포스트 코로나시대 시장·기술 변화에 대해서는 ‘일정 시차를 두고 서서히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복귀할 것’ 이라는 응답이 지배적(66.8%)

- 또한, ‘빠르게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복귀할 것’ (6.4%) 또는 ‘코로나 이전과는 다르게 시장·기술의 판도 자체가 크고 빠르게 바뀔 것’ (4.8%) 이라는 의견 보다는 ‘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며 시장·기술의 변화가 서서히 진행될 것’ 이라는 의견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림 (22.0%)



- 포스트 코로나시대 사회·경제적 문제 해결에 대해 ‘사회적 문제 해결은 정부와 국회에 맡기고, 경제적 가치 창출에 매진’ (46.0%) 하거나, ‘경제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되,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’ (45.2%)고 응답
- ‘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 수준을 넘어 직접적인 주체로서 적극 참여해야 한다’ 는 응답은 8.8%에 불과하여, 사회적 문제 해결보다는 경제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임

